

다음 세기로 넘기는 결핵

이 권 구 ■ 보건신문 취재부 차장

올해도 '크리스마스 썰'이 나왔다.

크리스마스 썰은 현재 세계 80여 개국 이상에 발행되고 있으며, 결핵퇴치를 위한 중요한 재원 모금의 수단이 되고 있다.

크리스마스 썰을 거론하는 이유는 새 천년을 코 앞에 둔 지금 못내 아쉬운 점이 있어서다. 인류의 건강을 위협해 온 가장 끈질기고 무서운 질병중 하나인 결핵근절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결핵의 기세도 꺾지 못한 채 새 천년을 맞아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지난 '81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 박멸을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인류는 현재 소아마비도 없앨 기회를 맞고 있다. 몇 지역에 남아 있지만 2000년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결핵도 이럴줄 알았다. 1882년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하며 인류는 결핵퇴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1950년대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보급되기 시작하며 선진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환자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간 심각한 보건문제였던 결핵과

의 전쟁은 인류의 승리로 굳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현재 결핵은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으로 살아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결핵환자수가 급발견 당시의 수준만큼이나 된다고 표현할 정도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발표는 결핵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 인구 3분의 1인 19억명이 결핵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에 감염됐고, 지난 97년 결핵에 걸린 796만명중 350만명이 사망했다. 특히 결핵사망자의 95%가 개발도상국에서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개선된 환경 조건으로 새로운 항결핵제 개발을 중단하고 별다른 결핵퇴치 대책을 세우지 않은데다 최근에는 결핵과 불가분의 관계인 에이즈가 급증,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결핵이 다시 등장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결핵에 관한한 느긋한 입장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40여년간 결핵협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결핵관리사업을 추진, 유행률이 감소해 오기

는 했다.

그러나 지구촌시대에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결핵 만연지역에서의 결핵을 줄이지 않으면 선진국의 결핵관리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93년 세계결핵비상을 선포, 각국 정부의 결핵대책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증액 요구등 관심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결핵치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선 2가지 이상의 주요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 즉 치료가 부적절하고 불완전해 발생하는 다제내성 결핵이 살아남아 번식하고 있다. 때문에 장차 세대에서의 결핵은 치유할 수 없는 질환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최근 하버드대 의사들은 여러 약품에 내성을 획득한 결핵균변종이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100여 개국에 출현했다고 보고했다. 이같이 내성결핵균이 발생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잘못된 약을 복용해 결핵균이 약품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때문이다.

에이즈도 결핵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면 결핵균을 방어하는 면역세포를 파

괴하기 때문에, 2000년에는 에이즈와 결핵의 이중감염자가 전 결핵환자의 7분의 1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된다.

최근 복지부는 국립보건원과 함께 2000년대 국가결핵관리대책을 세웠다. 21세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핵관

리 사업계획 수립과 향후 추진전략, 공공과 민간을 연계하는 국가결핵관리 체계와 구축 등을 담은 이 대책은 국내 결핵관리에 있어 많은 효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결핵환자나 대중들의 결핵에 대한 인식제고도 절실히 요구된다. 결핵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부족, 환자가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감독상의 난점, 약제내성 환자의 증가, 치료비용의 증가 등과 함께 대중들의 결핵에 대한 무관심은 결핵의 부활을 앞당기는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결핵치료는 비용대 효과가 가장 높고 올바르게만 치료하면 100% 완치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결핵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새 천년을 맞는 지금 100여 년을 이어온 크리스마스 썰에 결핵퇴치의 염원을 담으며 결핵이 사라진 새 천년시대를 그려본다. ♣

